

동아제약, 경영분쟁을 발전 전기로...

강신호 회장, 따뜻한 마음으로 수용 ... 연구개발 협력 의사도 피력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은 경영권 분쟁을 벌이다 전격 화해하고 이사회 멤버로 수용하기로 합의한 둘째 아들 강문석 수석무역 부회장과 유충식 동아제약 전 부회장을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3월26일 말했다.

강신호 회장은 동아제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은 제약업계 원로들과 동아제약 임직원들에게 감사한다면서 “지금까지 일을 되돌아보니, 많은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 같아 송구스럽다”며 “이를 갚기 위해서라도 동아제약을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제약기업으로 키워야 할 책임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날로 급변하는 국내외 제약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약기업들이 전문분야를 강화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우호적인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다른 제약기업과의 연구개발 협력 등 우호관계 구축에 적극 나설 뜻을 내비쳤다.

한편, 동아제약은 수석무역과 한국알콜 측이 3월22일 합의한대로 자체 추천한 이사회보좌 9명에 대한 주주제안을 철회하자 3월22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약속대로 유충식 전 부회장과 강문석 수석무역 부회장을 이사회보좌로 추천하는 내용의 새로운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의안으로 확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3/27>